

01 교회소식

성경이 참임을 입증하는 '무안단물'

14년 동안 응답과 치료의 역사로 하나님 사랑과 권능을 체험케 한 무안단물과 볼수록 놀라운 무안단물수족관을 들여다 보자.

02 생명의 말씀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물리치는 영적 장수가 되길 원하십니다.

03 기획특집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

수동적이고 결과만 중시하는 신앙이 아닌 과정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낌으로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행복하다.

04 간증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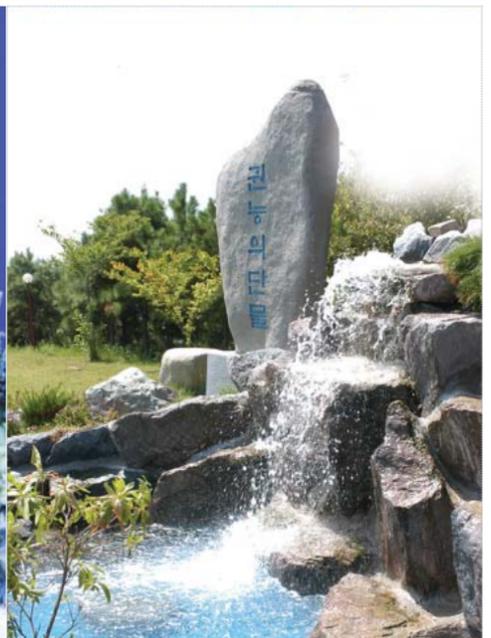
아들의 화골성근염 치료로 첫사랑을 회복한 박새봄 집사와 불면증과 목 디스크를 치료받은 태국 수리 분통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626호 2014년 3월 2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케 하는 무안단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성경상의 역사 재현해



수천 년 전, 노아의 홍수 당시 해수어와 담수어가 공존한 성경 속 특별한 역사가 우리 교회 무안단물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왼쪽 왼쪽 사진은 2007년 무안단물수족관 개관을 맞아 기도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우리 교회 무안단물수족관은 교회를 방문한 해외 방문객들의 필수 관람코스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해수어와 담수어가 공존하는 진기한 현장을 목도한다.

해수어와 담수어는 비중(염분),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능력 등 기타 생존 요건의 차이로 동일한 수질에서 공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무안단물수족관에서는 가시나비고기, 라쿤나비고기, 파우더 블루탱, 블루링 엔젤, 프렌치 엔젤 피쉬 등 해수어와 골든 바브, 나비 비파, 레드스팟 세버렘, 실퍼샤크 등 담수어를 동일한 수조에서 함께 기르고 있다.

무안단물관리위원회 총무 김의택 집사는 "전문가나 마니아들이 와서 무안단물수족관의 물 관리와 물고기 상태를 보고 놀랍니다. 꿈의 수조라고들 하지요. 양어 난이도가

높은 어종들을 같이 기르는데도 물고기들의 활성도가 매우 좋습니다."라고 한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 해수어와 담수어가 최상의 상태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무안단물에 하나님 권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무안단물의 근원지인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소재 무안만민교회(담임 김명술 목사)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수년간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마라의 사건(출 15:25)을 무안만민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했다.

이에 2000년 3월 5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통해 바닷가의 잔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됐다. 나아가 믿음으로 사용할 때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 권능의 현장인 무안단물터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무안단물은 2007년 미국 식품의약

국(FDA) 검사를 통해 안정성과 우수성이 확인됐다. 미네랄이 풍부하며 칼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샘물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추가 수질 검사를 통해 미국 수출품 음료 자격을 획득했고, 2013년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쳤다.

지난 3월 6일에는 권능의 현장인 무안만민교회에서 '권능의 무안단물 14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다. 이날 강사로 선 이수진 목사는 '복 받은 사람들'(마 13:16-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정구영 목사의 은혜로운 축사가 있었다. 이어 무안단물터 기적의 동산에서 장승연 집사의 사회로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크리스탈싱어즈와 빛의소리중창단의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있었다. 특히 김철주 무안군수, 정찬수 무안군의회 의원 등 내빈들과 현지 주민들이 참석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나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11~12)

빛의 갑옷을 입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대로 주님께서 공중 감람하실 때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나라” 했습니다. 항상 깨어 빛 가운데 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것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2~14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뜻은 마음과 입술, 행실이 거룩하고 사람의 마땅한 도리와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잠 4:23, 10:19 ; 벰전 1:15). 그러기 위해서는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등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을 벗어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선이 임한 만큼 성령의 소육을 좇을 수 있지만 악이 있으면 그만큼 비진리를 행함으로 어둠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속히 어둠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2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정욕을 좇아 육신의 일을 도모하려는 속성을 모두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말씀 자체가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경 66권 말씀을 배

우는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말씀의 빛으로 옷을 입으면 정욕을 좇아 행하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장수의 차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옷을 입었기에 풀무불에 던져질 위험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빛의 갑옷을 입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범사에 지킴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원수 마귀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벰전 5:8). 치열한 영계의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인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헛된 것을 철저히 버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행함으로 나올까요?

3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의 행함

먼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습니다(갈 5:24). 자신의 의지도 감정도 하나님께 맡겨 진리대로만 행하지요. 에스더는 두려움과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욕심을 끊어버리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가 민족을 구했지요.

다음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빛의 갑옷이 됐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잔멸시키기 위해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최고의 선으로, 온전히 빛에 거하므로 어둠의 세력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빛의 갑옷을 입은 영적 장수가 되면 명철을 통해 바른 길로 나가며,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을 깨뜨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4 빛의 갑옷을 입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빛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한 나라의 왕까지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정도로 온전한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룯도 선한 도리를 좇는 빛의 갑옷을 입었기에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지요. 다니엘은 어떤 흠과 티가 없었기에 굶주린 사자가 감히 해칠 수 없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정도를 좇아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았던 요셉은 강대국 애굽의 왕 다음 가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그분의 뜻을 좇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또한 시편 91편 15절에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설령 시험 환난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평안하며 빛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함으로,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세상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고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을 깨뜨리는 영적 장수가 되어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정욕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에게 대우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세세토록 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물리치는 영적 장수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을 깨뜨리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영적 장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장을 열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천지를 조성하시고 그 안에 만물을 이루시며, 사람을 살게 하셨을까요? 이는 수많은 사람을 경작하신 다음에 하나님 뜻에 합한 참 자녀들과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곡 된 성도들을 언제 데리러 오실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교회로 오시는 길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차: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00 PM, 9:00 PM, 11:00 PM, 11:00 PM, 7:00 PM, 8:00 PM, 9:00 PM, 4:00 PM, 3:00 PM
주일 저녁예배,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금요철차예배, 수요일예배,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다니엘철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포/인/트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신 10:13)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과연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대비해 점검해 보자.



□ 나는 수동적인가, 능동적인가?

신앙생활이 수동적인 사람과 능동적인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비록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가짐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의존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뒷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고, 누군가 이끌어 주고 밀어 주어야만 한다거나 은혜받을 때는 성령충만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수그러드는 것이다.

가령, 기도를 한다해도 수동적인 사람이 10시간을 억지로 한다면 그 기도의 향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강제로 누군가에 의해 마치못해 한다면 지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지만 능동적인 사람은 1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자발적으로 간절하게 하게 됨으로 그 기도의 향이 굵고 진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처럼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일의 가치를 아는 것이며, 그 일을 성취해 냈을 때의 맛을 아

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영위하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느끼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아름다운 천국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에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 성도들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신앙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적극적이고 뜨겁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으면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자 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

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돼야 한다.

물론 신앙생활은 자신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자복하면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다(요 14:26, 16:13).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기까지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 또는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노력했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성패가 갈리게 된다.

□ 나는 목표를 중시하는가, 과정을 중시하는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목표를 중시한 나머지 과정을 간과해 버리면 온전하다 할 수 없다.

영의 마음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느껴가고 행복과 평안을 이루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사모하며 이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발견해 마음의 비진리를 버려가는 과정이 기쁘고 행복하다. 하지만 목표의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비진리를 버려 나가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여겨진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해 안타깝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를 일애 대한 소망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매순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

지를 살펴야 한다. 일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차근차근 신앙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다.

사랑을 담은 말 한 마디, 짚을 내어 드리는 기도, 바쁜 중에도 읽는 성경,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쌓여 결국 바라는 목표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과 같다(유 1:20).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온 영’이라는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계 21:2; 살전 5:23)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목표만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 당시 제자들은 그 잔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그 의미를 깨닫고 제자들 대부분이 주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므로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눅 22:28~30).

우리도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 성을 얻으려면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하나 공의를 쌓아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확실한 소망 가운데 목표를 향해 기쁘고 행복하게 달려갈 때 온 영의 마음을 이뤄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최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3 March
2014.3.23~3.29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보배중의 보배는 믿음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3-5
- 위로부터 난 지혜 1-2
- 십계명 2-6
- 창세기 강해 81-85
- 천국 27-31 • 지옥 13-17
- 우리 삶의 등불 11

GCN TV 설교

- 성경속에 사는 교회 2 (이수진목사)
- 눈물의 열매 2 (이미경목사)
- 영의 세계 12/능력 2(이희선목사)
- 결단2/믿음의분량 2 (신동초목사)
- MIS강의 5/용서 (정구영목사)
- 목자의 마음 (천우진전도사)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구희선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19-20
- 찬양드려요 19-20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9-20
- 향기 19-20 • English 10
- 플로리스트 10-12
- 아름다운 예배 10
- 찬양교 경배(3) 94-100

해외성회 프로그램

- 필리핀연합대성회 3
- 회상 3

GCN 방송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희귀병 화골성근염으로 생겨난 9센티미터 뼈조각이 사라졌습니다”

박새봄 집사 (김해만민교회)

“아악! 어떡해! 민식이~”

2013년 9월 30일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아들 민식이(9세)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급히 뛰어가다 그만 달려오던 택시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민식이는 신호등 높이만큼 붕 떴다가 떨어졌는데 병원 X-ray 촬영 결과, 놀랍게도 몸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교통사고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식이는 차와 부딪힌 우측 무릎 아래 부위가 피멍이 들고 통통 부어 올랐지요.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아 10월 14일 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실핏줄이 많이 터져서 생긴 증상이라며 간단히 피를 제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퇴부 X-ray 촬영을 했는데, 화골성근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지요.

‘화골성근염’이란 근육조직이 골화(骨化:석회)가 가라앉으면서 뼈조각이 만들어지는 것) 되는 매우 희귀한 질환이었습니다.



기도받기 전 : 우측 대퇴부 화골성근염(9cm) 보임 / 기도받은 후 : 화골성근염 사라짐

회된 뼈의 길이는 9센티미터나 됐습니다.

민식이는 예전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아토피성 피부염과 농가진, 수족구 습진, 다리 인대가 늘어난 것 등을 치료받은 체험이 있기에 수술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들과 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입에 온몸이 뜨거웠고 통화자복의 은혜를 주셨지요.

저는 첫사랑이 식고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과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 등을 통화자복했습니다. 민식이는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아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하나님께 죄송하고 민식이에게도 미안했지요.

매일 집회에서 설교를 들으며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마음써 주신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님의 사랑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어 1월 29일, 성도님들과 함께 당회장님께 설 인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화골성근염을 온전히 치료받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악수를 했는데,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2월 25일, 병원을 갔는데 화골성근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센티미터나 되는 뼈조각이 하나님 권능으로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골성근염을 치료해 주시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수리 분통 성도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렵게 자란 탓에 남들에게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억누르는 성격이었습니다. 더구나 가정의 여러 문제로 신경이 예민해 불면증에 시달렸지요. 수면제를 복용해야 그나마 잠을 잘 수 있었고 심할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찾아가 평안을 얻고자 했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요.

2012년 초, 치앙라이로 이사하게 됐는데 치앙라이만민교회 이순옥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았습다. 태국어 ‘만민뉴스’를 읽으며 감동이 임했고, 2013년 3월 교회에 출석하게 됐지요.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담임 이재원 전도사)는 GCN 방송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 예배 실황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이웃과 화평치 못하고 말로 상처를 주었던 일 등을 회개했습니다. 특히,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는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를 드리며 경건하게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후 불면증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숙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올해 들어서는 목 뒷부분이 부어올라 통증이 심했습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받고자 지난 2월 2일 주일 저녁 예배 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후 통증이 사라지고 부기가 가라앉았지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제는 약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저의 어둡고 예민했던 성격을 밝고 활기차게 바꿔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이웃에게 전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북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4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1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1/3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번지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10호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흥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말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5층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